

##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통합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키로

尹시장·李지사 전격 합의  
나주시, 이전부지 무상 제공  
상생 첫 성과... 16개 과제 탄력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이 해어진 지 8년 만에 다시 하나가 된다. 민선 6기 광주·전남 상생 첫 과제로 추진됐던 시·도 발전연구원 통합이 시·도지사의 적극 합의로 성사되면서 이후 관련 사업의 전망도 밝게 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는 27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통합 연구원 이전부지를 광주·전남 상생의 상징이자 미래 동력인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두기로 합의했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는 지난 24일 이날(27일) 오후 1시30분까지 통합 이전 부지 등에 대한 시·도지사의 합의를 상임위원회 통과와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사가 미국 출장중이던 윤 시장과 전화통화를 통해 합의안을 조율한 뒤 이날 오전 일정을 연기하고 미국 출장에서 막 돌아온 윤 시장과

만나 마지막 고비를 넘었다. 통합 이전 부지 5000여㎡는 나주시가 제공하기로 했다.

윤 시장과 이 지사의 합의에 따라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는 이날 상임위원회를 열어 통합연구원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28일 열리는 전남도의회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겨졌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도 28일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하고, 같은 날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다.

이로써 올 초 양 시·도의회 상임위에 통합 조례안이 제출된 지 3개월 만에 광주·전남 통합연구원 설립이 가시권에 접어들게 됐다.

조례가 통과되면 곧바로 시·도 공동으로 통합준비실무회의를 구성한 뒤 법인 해산과 새로운 정관 작성 등을 거쳐 하반기 창립총회 개최, 설립 등기, 원장 공모 등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신기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민선 6기 들어 광주·전남은 한 뿌리라는 전제 아래 시작한 시·도 상생 프로젝트 중 첫 사업인 시·도 연구원 통합이 성과를 낸 만큼 나머지 상생 과제들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송상락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서둘러 가기보다는 의회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철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예산 수립 등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조례 수정안에서는 이시장 민간인 선임, 원장 공개모집 및 후보자 추천위 추천, 종합발전계획 수립·시행, 양 시·도 의회 매년 합동감사 실시, 연구결과물에 대한 자율성 보장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전남도의회 강성희 기획사회위원장은 "기금 불균형 문제와 소재지 문제, 시·군 의견수렴 등으로 막판까지 고심했다"며 "마지막에 소재지 문제를 양 시장·도지사가 전향적으로 결단을 내려 조례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합 연구원의 기금은 두 연구원의 기존 기금 차이를 인정해 통합 기금으로 조성하고 이후 기금 출연과 운영은 동등하게 부담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세월호 아픔 딛고... 진도서 전남체전 개막



‘보배로운 진도의 꿈! 하나되는 전남의 힘!’을 기치로 200만 전남도민의체육 한마당 잔치인 ‘제54회 전라남도체육대회’가 27일 진도 공설운동장에서 막을 올렸다. 이번 대회는 진도에서는 처음 열리는 것으로, 지난해 겪은 세월호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지역경제에는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한마음 체전이다. ▶관련기사 19면 /진도=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금호산업<sup>7</sup> 매각가 얼마나 될까

오늘 본입찰 접수 마감

금호산업 매각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27일 금융권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호산업 매각 본입찰이 28일 오후 3시 마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입찰 적격자로 선정된 사모펀드들이 대거 이탈할 것으로 보여 금호산업 인수전은 사실상 금호아시아 나그림과 호반건설의 2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14면〉

현재 본입찰 참여자격은 지난 2월 말 예비입찰에 참여해 입찰적격자로 선정된 호반건설과 MBK파트너스, IMM PE, 자베즈파트너스, IBK증권-케이스트파트너스 펀드 등 5곳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모펀드 4곳은 심사 결과 금호산업 인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본입찰 불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본입찰 접수가 끝나면 채권단의 매각절

차에 따라 금호산업의 주인은 올해 상반기 중 정해진다. 채권단은 늦어도 5월 초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1주 안에 채권단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된다. 이후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행사 여부를 1개월 안에 결정하면 된다.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내놓는 금호산업 지분은 57.5%(1955만주)로, 금액만 4490억원 가량이다. 금호산업은 2014년 시가총액평가에서 20위에 오른 중견 건설업체이지만, 뒤에 얽힌 지분관계가 시장 가치를 끌어올리고 있다.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지분 30.08%)다. 금호산업을 지배하면 사실상 아시아나항공 경영권을 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에 저비용항공사인 에어부산 지분 46.00%를 보유한 아시아나항공은 금호터미널(지분율 100%), 금호사육(79.9%), 아시아나개발(100%), 아시아나 IDT(100%)를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다. 때문에 채권단은 금호산업 지분가치를 8000억~1조원 수준으로 가능하고 있다.

‘진짜 경쟁’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 벌어진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입찰 최고가격에 경영권 지분(지분율 50%+1주)을 되살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회장이 그룹 재건을 위해 금호산업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보인 만큼 자금력이 관건이지만 하지만 사실상 인수 1순위 후보에 올라 있다. 이에 따라 호반건설이 박 회장이 감당하지 못할 인수가격을 제시할지, 아니면 박 회장이 호반의 제의를 무색하게 할 정도의 자금동원 능력을 보여줄지가 금호산업 인수의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 회장이 감당하지 못할 인수가격을 제시할지, 아니면 박 회장이 호반의 제의를 무색하게 할 정도의 자금동원 능력을 보여줄지가 금호산업 인수의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임동룡기자 lexian@kwangju.co.kr

## ‘네팔 강진’ 사망 5천명 이를 듯...여진 공포

중국 시짱까지 피해 확산

네팔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27일 오후 7시(한국시각) 현재 3726명으로 늘었다고 로이터통신이 네팔 내무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관련기사 2면〉

이는 이날 오전 집계됐던 사망자 숫자보다 약 500명 늘어난 것이다. 네팔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강진의 사망자가 최대

5000명까지 늘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네팔에서 중국 서부 시짱(西藏·티베트) 지역의 피해규모도 시간이 가면서 늘어나고 있다.

인민일보 인터넷판인 인민망(人民網) 등은 네팔에서 발생한 강진의 여파로 27일 오전 9시 현재 시짱에서 최소 20명이 사망하고 4명이 실종됐다고 27일 밝혔

다. 부상자는 최소 58명으로 집계됐다.

네팔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르카찌(日喀則) 네라무현 주민 7000명과 지룽(吉隆) 주민 5000명 등 1만 2000명이 긴급대피했다. 네라무, 지룽을 포함한 8개 현급 도시에서 30여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 시짱 지역에서는 가옥, 사원 등 건물 1천263채의 가옥이 무너지고 여러 지역의 도로와 통신이 끊겼다. 이번 지진으로 손상된 건축물은 총 1만700여 채에 이른다.

중국 시짱당국은 지진피해가 난 지역에서는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도로가 끊겨 아직 구조작업이 이뤄지지 못한 곳도 있어 인명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현뉴스

## 이완구 총리 사표 수리...또 총리 부재 사태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27일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국무총리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총리가 지난 20일 사의를 표명한 지 일주일만이다. 〈관련기사 3면〉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이 총리 사표를 재가했다”

고 밝혔다.

중남미 순방 기간 고열과 복통에 시달렸던 박 대통령은 이날 건강검진 결과, 1~2일 절대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 이 총리 사표 수리도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총리 사표를 신속하게 수리했다. 오는 29일 재보선을 앞두고 더 이상의 여론 악화를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부는 당장 총리 부재 사태에 따라 새 총리 취임 때까지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총리직을 대행하는 체제로 가동된다. 이에 따라 이 총리는 이날 오후 6시 10분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임명식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어? 성경이 읽어지네!**  
4월 3일(금)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4시 (10주 과정)  
구약 과정 개강 062) 605-1112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

**“복면 쓴 5·18 시민군 찾습니다”**  
  
‘왜곡 대응’ 증거 수집 나서 ▶7면

### 봄날은 짧다

The Romantic Getaway with SLK-Class

그 어떤 봄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추억을 이 순간 가장 아름다운 날에서 SLK-Class와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남해 SOUTH CAPE SPA&SUITE 리조트 스키야채 1박 2일 숙박권 및 차량 렌탈, 36개월 0%이자 원금 차등 금융 프로그램.

\*본 프로모션은 2015년 3월 31일 8월 31일까지 2000만원 구매 고객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신성자동차(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SLK 200 1,796cc, 1,520kg, 자동7단, 복합연비 10.6km/ℓ (도심연비: 9.4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4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66g/km  
 \*SLK 350 3,498cc, 1,555kg, 자동7단, 복합연비 9.6km/ℓ (도심연비: 8.4km/ℓ, 고속도로연비: 11.7km/ℓ), 4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84g/km  
 \*SLK 55 AMG 5,461cc, 1,630kg, 자동7단, 복합연비 9.1km/ℓ (도심연비: 7.8km/ℓ, 고속도로연비: 11.4km/ℓ), 5등급, 복합CO<sub>2</sub> 배출량 195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